

■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가벼운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한다.

그 간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사도간 영업구역을 넘는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고 있어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차 위반시 경고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시에는 영업폐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폐쇄

둘째,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항 신고 방법을 개선한다.

그 동안 낚시어선업자가 출입항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승선신고서와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에서 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모바일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이 추가된다.

* 출입항 신고기관(1,215개소) : 해양경비안전센터 91, 출장소 239, 민간대행 885

해양수산부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그 동안 줄어들지 않던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한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중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함께 떠나는 안전 낚시여행

낚시어선 안전운항 수칙

- 출항전 안전점검은 필수!**
 - 구명조끼, 소화기, 통신기기, 구급약품 등 안전 장비와 선체 및 기관 등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승객 준수사항은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합니다.
 - 낚시 승객은 미신고 또는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기상상황 반드시 확인!**
 - 기상 상황 및 물매 정보를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절대 무리한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 출항 이후 기상악화가 예상될 시 과감하게 즉시 철수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기상예보는 지역번호+131(기상물센터)
- 출입항 신고 철저!**
 - 선원은 승선자명부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객 신분 및 승선 인원수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낚시 승객은 승선자명부에 자신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승선정원 초과는 안돼요!**
 - 승선정원 초과 및 부적격 낚시객의 승선은 NO!
 - 낚시 승객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더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고를 대비해야죠!**
 - 출항 전 선원은 승객에게 안전장비 보관 위치와 사용법 및 비상시 대처 요령을 설명합니다.
 - 낚시 승객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상시 대처 요령을 인지하고 구명조끼도 착용합니다.
- 위험한 장소 안내는 반드시 거절!**
 - 선원은 위험한 장소로 안내하지 않고, 승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운항 시간과 출입금지구역 및 각종 안내판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과속운항 안돼요!**
 - 반드시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합니다.
 -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을 대비하여 경사를 항상 철저히 합니다.
- 음주 금지!**
 -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은 NO!
 - 낚시 승객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음주를 자제하고 고상방가 등 공공장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사고발생 시 신속히 신고!**
 - 사고발생시 반드시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해양긴급신고: 122
 - 해상에서 위치 확인 및 조난구조 요청이 가능한 휴대전화 사용합니다.

www.naksuri.com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3.0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일을 놓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정보

해파리 대량 출현 우려로 지난해보다 한 주 먼저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경남 고성군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함에 따라 6월 2일부터 경남 고성만·자란만 해역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해파리 개체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경남 자란만과 고성만에서 보름달물해파리 평균 출현량이 16마리/100㎡로 주의 경보 발령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성만은 최대 149마리/100㎡에 달하여 해파리 대량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해파리 주의 경보 발령

올해는 보름달물해파리 성체가 예년에 비해 일찍 출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고성군)는 발생해역에 해파리 구제작업을 수행하는 등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초부터 '해파리 피해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여 지자체, 국민안전처 등과 해파리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해역별로 민간 요원*을 운영하여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터넷 알림서비스(<http://www.nfrdi.re.kr>) 및 어플리케이션(해파리 신고 앱)을 통해 해파리 출현·방제 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 운영기간 : 매년 5월~12월, 주 1회 정보수집
민간모니터링 요원 391명 운영(일반 어업인 157명,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234명)

한편, 해수욕객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안내방송, 입수 통제 등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 해파리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작년보다 일주일 앞서서 주의 경보를 발령한 만큼, 해파리로 인한 어업인과 해수욕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협조가 해파리 모니터링이나 신속한 방제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해파리 신고 앱' 및 전용 전화(051-720-2236)로 해파리 목격 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해파리 중 어업 피해가 큰 종은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우리 바다에 가장 흔한 종으로 6월경 대량 발생하는 보름달물해파리는 최대 30cm까지 성장하며, 독성은 약하나 접촉에 의한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파리 경보 기준 및 발령 내역

[경보 발령 기준(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매뉴얼)]

- 해파리 관심 경보('14년 신설)
 - 해파리 부착유생 대량서식지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해파리 부유유생 또는 유체(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되어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 해파리 주의 경보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 노무라입깃해파리 3마리 이상/100㎡)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 해파리 경계 경보
 - 해파리가 광역 수역(3개 시군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이상/100㎡, 노무라입깃해파리 3마리 이상/100㎡)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5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 해파리 심각 경보
 - 해파리가 대부분의 수역(3개 광역 시도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마리 이상/100㎡,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100㎡)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8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심각할 때

[연도별 해파리 경보 발령 및 해제 현황]

연도	경보종류	해역	발령일시	해제일시	주요 출현종
2012년	주의	경남 마산만	7.3	9.4	보름달물해파리
		전남 기막만	7.3	9.4	
		경남 진동만	10.26	12.6	
	경계	전남 신안군	7.19	9.28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9.28	12.6	
	경계	전북도	8.6	9.28	
주의		9.28	10.22		
2013년	주의	경남·경북·부산·울산	9.11	12.6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전남 득량만	7.15	10.8	
		전남 신안군	7.22	10.8	
		부산	8.23	11.29	
2014년	관심	경남	8.26	11.29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전남 고흥·보성·장흥군	6.19	12.1	
		경남	8.18	12.1	
2015년	주의	경남 고성군	6.10	11.4	보름달물해파리
		전남 득량만	6.11		
		경남 전체 해역	6.19		

1/4분기 참조기·갈치 어획량 늘고, 꽃게·고등어 줄었다

2016년 1/4분기에 참조기와 갈치 어획량은 증가하고, 꽃게와 멸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참조기(3,356톤), 갈치(9,011톤)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87.8%, 53.4% 증가하고, 꽃게(89톤)와 고등어(20,892톤)는 각각 59.2%,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참조기는 1~2월 제주와 서해중부 해역에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어장이 형성되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갈치는 제주 근해연승어업 생산량은 줄었으나 대형선망어업의 생산 증가로 어획량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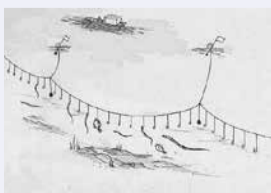
꽃게는 유생분포 밀도가 '13년도의 50%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그리고 고등어는 주요 어장인 제주도 주변 수역의 수온 하강으로 인하여 중심어군이 제주도 이남으로 월동함에 따라 각각 어획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 인천해역 자원량 추이(톤) : ('13) 30,620 → ('14) 22,628 → ('15) 15,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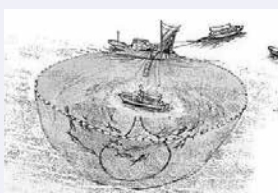
** 평균 갑폭변화 : ('95) 136cm → ('01) 124 → ('07) 133 → ('14) 122 → ('15) 123

이밖에 붉은대게(14,677톤, 30% ↑), 삼치(9,773톤, 3% ↑), 오징어(25,119톤, 0.1% ↑)는 증가하고, 멸치(29,453톤, 53.7% ↓), 전갱이(3,286톤, 67% ↓)는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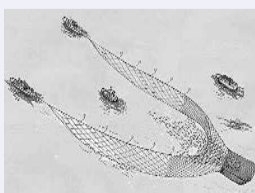
[조업모식도]



근해연승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16.1분기 연근해 주요 수산물 생산동향]

(단위: 톤)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		'15년 총생산량	금어기 휴어기
	3월	누계 (~3월)	3월	누계 (~3월)	3월	누계 (~3월)	3월	누계 (~3월)		
멸 치	18,519	59,246	21,173	63,646	8,832	29,453	-58.2	-53.7	211,575	권현망 ^{6%} (4.1~6.30)
오징어	1,261	32,141	2,307	25,097	996	25,119	-56.8	0.1	155,743	정치망 제외 (4.1~5.31)
고등어	5,751	25,041	14,572	37,375	3,451	20,892	-76.3	-44.1	131,735	대형선망 ^{94%} (4.28~6.4)
갈 치	2,304	6,468	1,752	5,874	2,572	9,011	46.8	53.4	41,049	채낚기 등 제외 (7.1~7.31)
참조기	1,578	4,802	425	1,787	313	3,356	-26.3	87.8	33,254	근해유자망 ^{82%} (4.22~8.10)
붉은대게	3,872	10,794	3,791	11,247	5,810	14,677	53.3	30.5	41,647	(7.10~8.25)
삼 치	1,594	8,028	2,424	9,490	1,301	9,773	-46.3	3.0	37,872	-
청 어	3,110	6,979	2,923	9,142	1,534	4,388	-47.5	-52.0	25,903	-
꽃 게	152	289	104	218	37	89	-64.4	-59.2	16,373	(6.21~8.20)
가자미	2,246	5,810	1,978	5,056	1,745	4,220	-11.8	-16.5	14,924	-
전갱이	3,401	7,411	6,292	9,904	869	3,286	-86.2	-66.8	43,362	-
기타	23,651	74,920	25,025	78,284	22,700	79,334	-9.3	1.3	304,617	-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우리 바다에 해가 되는 해양생물에 대처한다

2018년까지 유해교란 해양생물 관리기술 개발 2단계 착수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와 외래생물 유입 등으로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해파리와 같이 국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의 출현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3년부터 9년간 총 295억원을 투입하여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은 법정유해해양생물*과 유해교란우려생물의 분포 및 서식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확산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생태실험을 진행한 결과, 유해해양생물 신종 발견, 유해해양생물 조기 탐지 기술 개발 등 성과를 거두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노무라입깃 해파리 등 13종 지정(참고)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기술개발 사업단(단장 : 전남대학교 김광용)”의 정해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플랑크톤 신종 2종(*Ansanella*

granifera, *Aduncodinium glandula*)을 발굴하였다. 특히, 2015년 1월 국제적으로 저명한 적조학술지인 “Harmful Algae”(SCI)에 *Aduncodinium glandula*에 대해서 논문을 게재하여, 향후 유사종 연구와 신종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해해양생물을 조기 탐지하는 유전자 마커*(Genetic Marker) 기술을 개발하여,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종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유해종의 확산 범위와 발생 원인을 빠르게 규명하여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물의 DNA 서열에서 알려진 염색체의 위치로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편, 연구진은 올해 2월 핑거레더 산호 등 외래침입종이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고 있음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 종은 기존에 서식하던 거품돌산호, 해조류 등의 다른 저서생물을 질식사시키면서 서식범위를 넓혀가는 등 해양생태계 교란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토산리 앞바다 암반기질을 잠식한 핑거레더산호류(최근 유입된 외래종으로 2016년 2월 최초 발견)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을 통하여 관리가 시급한 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물방제제를 개발하고 이동경로 추적 및 확산방지 기술을 연구하는 등 유해교란생물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열대 외래종 등의 침입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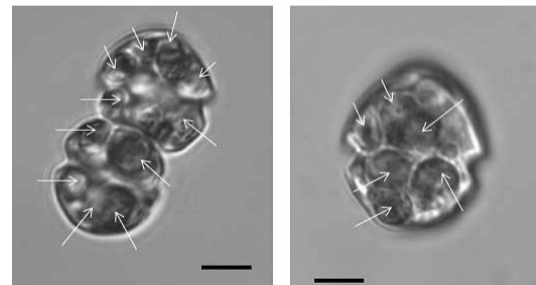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연구 결과 관리가 시급한 종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해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독성 해파리·불가사리·적조 등에 의한 양식업 피해를 줄여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건강한 해양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정 유해해양생물 13종 현황]

유해 생물명	주요특징
① 노무라입깃해파리	• 우리나라 출현 해파리 중 크고 독성이 강한 종, 수산업 그물 파손 및 축수에 접촉 시 위험
② 작은부레관해파리	• 축수에 물고기나 사람이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독소 주입, 열대아열대 종으로 인간에 치명적
③ 보름달물해파리	• 보름달물해파리들은 대량 발생·집단 서식, 수산물을 어획하는 과정에서 그물을 가득 메워 수산업에 피해
④ 코클로디니움	• 극동해역에서 유해 적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물 플랑크톤으로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물고기의 호흡곤란 유발
⑤ 차토넬라	• 1960년대 일본 연안에서 발생한 적조발생 원인, 물고기에 달라붙어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들고, 산소공급 부족으로 물고기 치사
⑥ 세방가시아끼벌레	• 군체성 동물, 물속 바위표면을 점유하면, 다른 부착성 무척추동물이나 해조류 등은 삶의 터전 상실
⑦ 관막이끼벌레	• 매우 작은 크기의 개체들이 군체를 형성하여 패각표면을 덮어 버리거나, 해조류 표면을 습격하여 해조류의 광합성 방해
⑧ 자주빛이끼벌레	• 전세계적으로 분포된 전형적인 부착 오손생물, 암반표면이나 단단한 물체의 표면을 덮으면서 성장하므로 다른 부착생물 부착 불가능
⑨ 아르불가사리	• 바다의 해적생물, 포식자로 이동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 교란행위를 자행하며 양식장에 피해 발생
⑩ 별불가사리	• 굴, 전복, 조개 등 연안어업 및 양식업에 피해발생, 하지만 황폐한 바다 속에서 유기물을 섭식하므로 바다의 청소부 역할도 수행
⑪ 알렉산드룸	• 신경독소인 마비성패독 보유, 독성이 축적된 조개류를 먹게 되면, 혀, 입술, 손발 등에 경련이나 마비현상 초래, 최악의 경우 사망
⑫ 디니파이스스	• 연안의 조개류 등 물속의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저서생물이 디니파이스스를 먹으면 복통, 설사 및 위장장애 등을 유발
⑬ 슈도니프시아	• 사람이 섭취하면 경련, 설사, 위의 통증, 심한 경우에는 방향감각 상실 및 기억 상실증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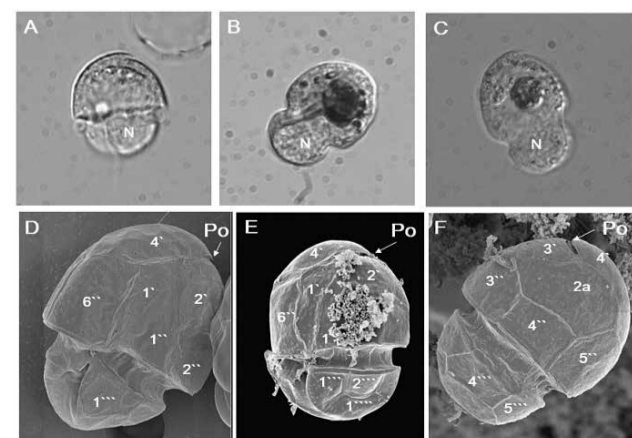
[위해우려 플랑크톤 신종 발굴]

① *Ansanella granifera* : 2015년 시화해역에서 최초 발견, 섭식능력이 기존의 유해 플랑크톤보다 크고 빠르게 성장하므로 해양플랑크톤 먹이사슬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종



신종으로 발굴한 *Ansanella granifera*가 먹이인 *Pyramimonas* cell (흰색 화살표)들을 섭식

② *Aduncodinium glandula* : 2015년 마산만에서 최초 발견, 유해 적조생물로 악명 높은 Pfiesteriaceae에 속하는 종이어서 번성할 경우 어류의 피부, 아가미, 전복의 유생, 알 등을 공격하여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신종으로 발굴한 *Aduncodinium glandula*의 광학현미경(A-C) 및 전자현미경(D-F) 사진

우수공동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희망 공동체는 지자체를 통하여 참가 신청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공동체를 발굴하고, 입상공동체에는 상금 및 지정패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참여의식을 높이는 한편 우수사례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예선(서면평가) 및 본선(공개평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전년도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최근 3년 이내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서 최우수·우수·장려 공동체로 선정되었거나, 성공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입상한 공동체는 제외된다.

입상한 공동체(최우수·우수·장려)에는 소정의 상금 및 지정패가 수여되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패는 10월에 개최되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시 별도로 수여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지자체(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해양수산부(또는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문 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 4609)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 컨설팅이 실시된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3~5회의 범위 내에서 직접 공동체를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 시설 등 관광과 연계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 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지역담당 컨설턴트, 컨설팅 이외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

지역담당 컨설턴트(12명)는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및 아직 자율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월 중에 활동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김옥환 컨설턴트

- 2016. 5. 3. / 경남 신규공동체(14년~15년) 및 관계기관 25명 대상
- 주관 :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통영)
- 우수공동체(거제 계도공동체) 현장 견학



김옥환 컨설턴트는 경남수산기술사업소가 주관한 우수공동체 현장 견학교육에 참여했다.

- 2016. 5. 23. / 경남 통영 관내 자율관리공동체 30개소 및 관계기관 등 150여 명 참석
- 통영시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다정화 활동은 공동체 참여의식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 바다정화 활동에 동원된 장비는 집게차 1대, 선박 5척, 그물망 20개, 마대 200장 규모이며, 수거된 쓰레기양은 스티로폼, 페어망, 폐나무 등 총 130여 톤이다.
- 수거된 쓰레기는 통영시청에서 위탁처리한다.



김옥환 컨설턴트는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다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 임여호 컨설턴트

- 2016. 5. 30. / 한국부인회여수시지회 회원 70명 대상
- FTA 수산분야 동향과 자율관리어업 추진활동 소개



임여호 컨설턴트가 한국여성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FTA 수산분야 동향과 자율관리어업 추진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임희순 컨설턴트

- 2016. 5. 27. / 충남 보령 효자도공동체 41명 대상
- 교육주관 :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 자율관리어업의 정의, 목표, 추진현황 및 공동체 발전방안 등



임희순 컨설턴트가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수협법 등 해수부 법률 8건, 국회 통과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식)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유힬항만을 해양신성장 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그간 물류기능으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해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요·보트 제조업, 해양에너지 기업 등 해양신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금년 내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등을 위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수협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자회

사로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국제자본규제(바젤Ⅲ)를 충족할 수 있어 은행수익에 기반한 협동조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로 중앙회는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중레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자를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 운송사업자 등록 등이 가능하게 하여 합법적인 영역에서 수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중레저산업 진흥과 수중레저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지닌 지역의 발굴 및 홍보, 각종 수중레저 대회 개최 지원, 수중레저장비 제조산업 육성 등 수중레저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선원 및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간 문제가 되었던 낚시어선

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은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등 소수 임원에게 권한이 집중된 해운조합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해운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항운노조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이자 및 생계안정지원금을 2020년(현재 2015년)까지 지급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항운노조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⑦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추가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어촌어항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⑧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법률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항만물류기획과 안용운 사무관(044-200-5757)
- ② (수협법) 수산정책과 변해중 서기관(044-200-5431)
- ③ (수중레저활성화법) 해양레저과 최장원 사무관(044-200-5255)
-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정책과 정제영 사무관(044-200-5538)
- ⑤ (한국해운조합법) 연안해운과 허서영 사무관(044-200-5735)
- ⑥ (항만인력공급체제 지원특별법) 항만운영과 박솔잎 사무관(044-200-5775)
- ⑦ (어촌·어항법) 어촌어항과 한정수 사무관(044-200-5657)
- ⑧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과 김영진 사무관(044-200-5920)

‘능성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출시

31일부터 여수, 통영, 거제, 제주 4곳에서 가입 가능

능성어 양식어가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식)는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로 부상하고 있는 ‘능성어’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5월 31일부터 전남 여수, 경남 통영·거제, 제주 4개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식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능성어 양식 62개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능성어는 특유의 찰지고 달큰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으로, 현재 26

천원/kg에 거래되고 있어 양식 어가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자연산 치어에만 의존하여 생산량이 불안정하였으나, 최근 기술개발로 인공종묘·양식기술이 어가로 이전되면서 양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재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양식어가의 안정적 소득 장치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능성어에 이어 미더덕(9월), 오만둥이(11월) 등 총 3종 상품이 추

가로 출시되어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총 21개에서 24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 대상품목 확대 : (‘08~’12) 11품목 → (‘13) 15 → (‘14) 18 → (‘15) 21 → (‘16) 24
금번 출시되는 능성어 양식재해보험은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이상 수온, 이상 수질 포함)에 의한 재해 피해를 보장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

해어가(148어가)에 보험금 141억원이 지급되는 등 양식재해 보험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인이 양식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품목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확실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능성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대상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능성어 양식재해보험 개요]

- 보험 대상 목적물
 - 양식수산물 : 무게 100g 이상 또는 전장 15cm 이상
 - 양식시설물 :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일체(단, 닻·닻줄로프는 제외)
- 가입대상자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법인
- 보상하는 재해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이상수온, 이상수질 포함)
- 상품구조 : 주계약 /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 자연재해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이상조류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이상수온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이상수질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
- 보험가입기간 : 1월~6월, 10월~12월 □ 보험기간 : 1년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 양식수산물의 성장률, 잔존율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결정(최저 50%)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30%에서 가입자가 선택
 - * 자기부담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 지급
- 보험료 납입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보험료 100만원 이상에 한하여 2회 또는 4회 분납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 계속계약 할인(5%)
 - 방재시설 할인(5%)
 - 구조 및 시설에 따른 할인(최대 35%)
 - 손해율에 따라 할인·할증 ±50%
- 피해 발생 시 보상액 산정
 - 손해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보상액을 산출하며, 적용가격은 사업지역 산지가격자료의 90%

한미 수산물 교역, FTA 이후 크게 늘었다

수산물 교역규모 33.3% 늘고, 수출은 발효 전보다 22.8% 증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과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이전에 비하여 33.3% 증가(3억 6000만 달러 → 4억 8000만 달러)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산물 교역규모는 1.3% 감소(65억 4010만 달러 → 64억 5460만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19.1% 줄었지만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22.8%가 늘었으며, 전체 수산물 수입액은 8.7%

증가한 반면, 대(對)미 수입액은 47%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김(75.9% ↑), 이빨고기(29.9% ↑), 넙치(144% ↑), 참치(149% ↑) 등으로, 국내 생산 호조, 활어 수송용 컨테이너 개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출액 1위를 기록한 김은 미국에서 간식용 조미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또한 전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바닷가재(4,900% ↑), 연어(236.8% ↑), 명태(79.3% ↑), 멍장어(55.3% ↑)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바닷가재는 관세인하(20% → 4%) 및 국내 대형할인점의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 힘입어 국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났고, 연어는 관세인하(10% → 0%) 및 국내 대기업의 연어 통조림 출시에 따라가

공용 연어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명태는 국내 생산 감소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멍장어는 관세 혜택에 따라 수입 국가가 일본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향후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품목 발굴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전후 한미 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천\$, 전동기비 %)

구분	발효전 ('11.3~'12.2)		발효1년차 ('12.3~'13.2)		발효2년차 ('13.3~'14.2)		발효3년차 ('14.3~'15.2)		발효4년차 ('15.3~'16.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세계	2,363,491	4,176,519	2,393,422 (1.2)	3,972,657 (Δ4.9)	2,118,919 (Δ11.5)	3,936,925 (Δ0.9)	2,029,211 (Δ4.3)	4,604,180 (16.9)	1,911,346 (Δ5.8)	4,543,113 (Δ1.3)
미국	192,132	166,361	192,515 (2)	188,439 (13.3)	220,743 (14.7)	222,458 (18.1)	214,903 (Δ3.7)	238,840 (7.4)	235,937 (9.8)	244,545 (3.6)

※ 출처: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주요 수산물 수출 동향(기간: '11.3~'16.2)]

(단위: 천\$)

구분	발효전	1년차	4년차	증감률(%)		수출비중(%)*	
				발효전 대비	1년차 대비	발효전	4년차
합계	192,132	192,514	235,937	22.8	22.5	8.1	12.3
김	40,581	56,196	71,399	75.9	27	35.9	27
이빨고기	25,361	23,032	32,967	29.9	43.1	51	71.9
오징어	20,756	16,675	16,962	Δ18.3	1.7	10.8	15.3
굴	22,560	3,603	16,747	Δ25.8	364.8	33.9	22.9
기타 어류	21,821	19,870	15,912	Δ27.1	Δ20	2.7	7.4
넙치	5,790	7,975	14,137	144	77.3	3.2	12.9
참치	3,641	9,238	9,083	149	Δ1.7	0.4	0.4
어류가공품	7,298	7,193	8,376	14.8	16.5	25.5	20.5
미역	6,414	5,919	6,430	0.2	8.6	8.9	9.9
멸치	5,738	5,832	6,260	9.1	7.3	56.1	56

주: 1) 분석 기간은 한-미 FTA 발효 전 1년('11. 3~'12.2), FTA 발효 1년차('12. 3~'13.2), FTA 발효 4년차('15. 3~'16.2)로 증감률은 FTA 발효 4년차가 기준임
2) 수출비중은 해당품목의 전체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량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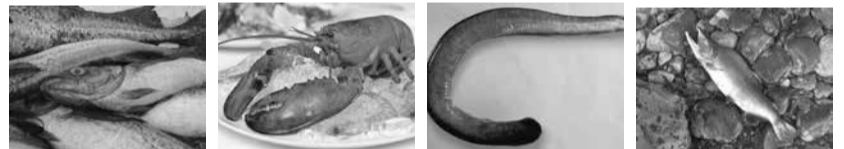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기간: '11.3~'16.2)]

(단위: 천\$)

구분	발효전	1년차	4년차	증감률(%)		수입비중(%)*	
				발효전 대비	1년차 대비	발효전	4년차
합계	166,361	188,439	244,545	47	29.7	3.9	5.4
명태	39,323	49,013	70,497	79.3	43.8	5.2	11.7
바닷가재	765	2,615	38,272	4,900	1,363.1	3.5	42.6
넙치	22,163	26,063	23,797	7.4	Δ8.7	44.1	49.8
멍장어	11,167	14,115	17,342	55.3	22.8	51.4	72.2
대구	9,496	8,093	12,843	35.2	58.7	18.7	25.6
어란	17,672	16,349	12,756	Δ27.8	Δ22	27.7	23.7
아귀	14,510	13,383	11,050	Δ23.8	Δ17.5	10.5	7.8
연어	2,422	1,383	8,159	236.8	489.8	2.5	8.7
기타 수산물	4,009	4,492	7,999	99.5	78.1	5.7	7.3
홍어	8,216	8,797	6,432	Δ21.7	Δ26.9	13.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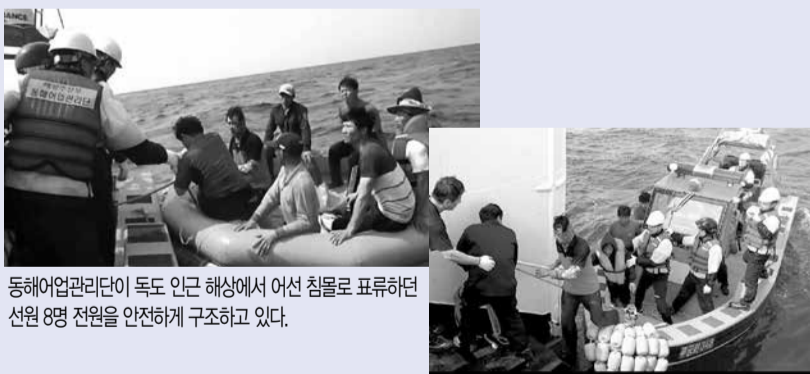
주: 1) 분석 기간은 한-미 FTA 발효 전 1년('11. 3~'12.2), FTA 발효 1년차('12. 3~'13.2), FTA 발효 4년차('15. 3~'16.2)로 증감률은 FTA 발효 4년차가 기준임
2) 수입비중은 해당품목의 전체 수입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량 기준임

[주요 교역품종 사진 자료]



이빨고기(일명 메로) 바닷가재 멍장어(일명 품장어) 연어(미국산)

동해어업관리단, 침몰어선 선원 전원 구조



동해어업관리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몰로 표류하던 선원 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5월 31일 14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4호가 독도 남쪽 51마일 지점에서 2시간 동안 표류하던 구명뗏목을 발견하고, 뗏목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전원을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사고 선박인 울산선적 근해통발어선 '협동'호(29톤)의 선장 주모 씨 진술에 따르면, '협동'호는 31일 오후

12시경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어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울었으며, 미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전복되었다고 한다.

선원 8명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무궁화34호는 이들을 태우고 포항항으로 6월 1일 오전 7시경에 도착했다.

일 목포 북항 일원에서 '어선안전의 날' 행사 실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VHF-DSC ON"생활화 등 선진 안전문화 정착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1일 전남 목포 북항에서 어업인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행 및 조업 중 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토록 하기 위하여 '어선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10년부터 매월 1일을 '어선안전의 날'로 정하고,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01개 주요 항·포구에서 비상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강연과 함께 어업인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구명조끼 상시착용, 무선통신장비 상시 켜기(VHF-DSC* ON 운동)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 초단파대 무선전화인 VHF통신기에 DSC(디지털선택호출) 기능을 부가해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
이번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목포시,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인 등 150여 명이 목포 북항에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가두 캠페인, 구명뗏목 해상시연, 화재 시 퇴선요령 시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무리한 조업관행, 안전수칙 미 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충돌, 기관 고장, 화재 등 어선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15년도 말 기준 어선 사고는 전체 선박사고 중 84%로, 어업인 사망실종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어업인 스스로 안전장비 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캠페인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어업인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서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6년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 시작

전반기 친환경 부표 시험인증 및 단가계약 완료



기존 부표로 인한 오염



친환경 부표 인증제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도 친환경 부표의 보급지원 대상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한 후 5월 25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부표 총 사용량은 52백만 개이며 이중 스티로폼 부표는 41백만 개(약 78%)로 추정된다. 특히 스티로폼 부표를 많이 사용하는 양식업종은 김(48%), 굴 수하식

양식(31%), 해조류(8%) 등이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스티로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배출이 현저히 낮은 제품 중 내구성과 성능 등을 고려한 시험 기준을 통과한 23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서 선정된 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친환경부표를 구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5월 25일부터 해당 지역 수협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정부로부터 35%, 지자체로부터 35%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사용 중인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기한이 평균 3년 정도로, 이후에는 스티로폼이 부서져 바다에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있어 스티로폼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사용 기간도 약 5~10년으로 스티로폼 부표보다

두 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부표 사용이 많은 김, 굴 양식장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부표를 개발하여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부표 인증 현황]

업체명	제품명	업체명	제품명
영도플라테크	친환경부표 (사출, PP)	유림에코	세라믹 폴리우레아 코팅 부표
경남해양테크	굴양식용부표 (사출, PE)	유창	PE 코팅 친환경부표
에스인더스트리	NS-66 사출부표	코프리즘	KP-EPB-S-60
신세계씨월드	동동이A (사출)	코와스	신기술부표
대흥산업	페트병부표	코와스	신기술부표(E)
해원	사출형 개량부표	씨라이프	씨라이프 폴리우레아 친환경부표
동주씨테크	개량부표 (공기주입식)	현대마린테크	개량부표
동주씨테크	수압부표 (사출)	국제화학	친환경 개량부표
제이에스수지	PE필름접착부표	태광	(주)태광 친환경부표
비전텍	친환경 폴리우레아 부표	진일산업	사출성형
코부이테크	사출부표	에어파렛트	킹왕부표
주영테크	사출형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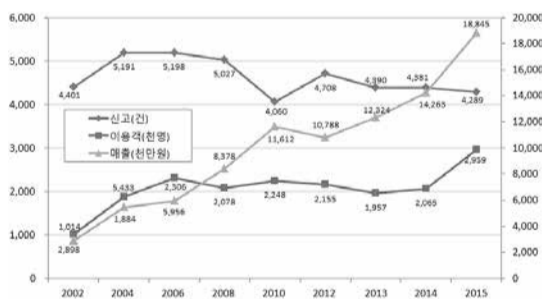
낚시어선은 전년수준, 낚시어선 이용객 및 매출은 UP

해수부, 2015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3일 지난해 전국 낚시어선 신고척수, 낚시어선 이용객 및 소득 규모 등에 관한 “2015년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 신고 척수는 4,289척으로 2014년 대비 2.1%(92척) 감소하였으나,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296만 명으로 43.7%(90만 명) 증가하였으며, 낚시어선업 전체 매출*은 약 1,885억 원으로 60.4%(71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매출액도 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9%(17백만원)나 증가하였다.

* 전체 매출 추정 : 낚시이용객 × 낚시어선 척수 × 평균이용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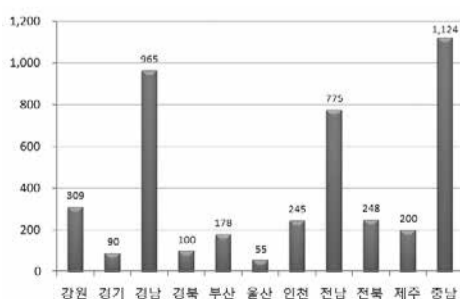


〈연도별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바다낚시가 국민레저로 각광 받으면서 바다낚시객이 43.3% 증가하여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이용객 증가와 함께 낚시어선 이용요금이 전국 평균 12.0% 정도 오르면서 업계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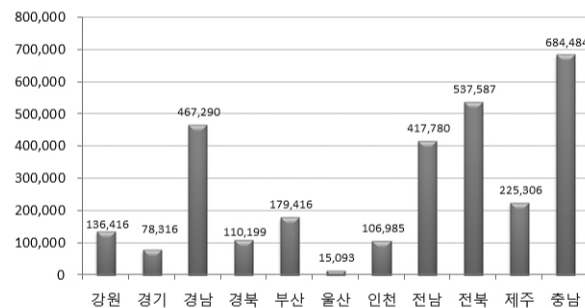
* 전국 낚시어선 이용요금(1명당) 평균 : (14) 56,878원 → (15) 63,690원(12.0% ↑)

지역별 어선 척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26.2%(1,124척), 경남 22.4%(965척), 전남 18.1%(775척)로 전체 신고어선의 66.8%(2,864척)를 차지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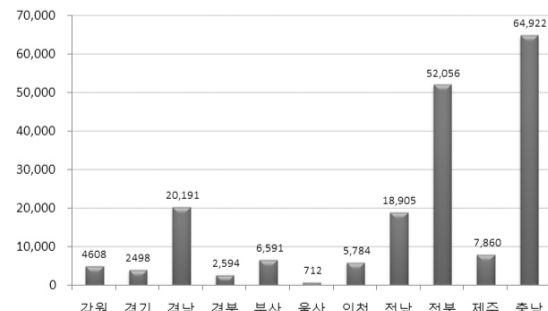
〈지역별 낚시어선 현황(단위: 척)〉

이용객은 충남 23.1%(684천명), 전북 18.1%(538천명), 경남 15.7%(467천명)로, 세 지자체가 전체 이용객의 57.1%(1,689천명)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단위: 명)〉

매출액은 충남 649억원(34.4%), 전북 520억원(27.5%), 경남 202억원(10.7%)으로, 세 지자체가 전체 매출의 72.7%(1,371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낚시어선 매출 추정(단위: 백만원)〉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해 돌고래호 사고에서 경험했듯이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낚시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낚시어선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한 만큼, 정부도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어선업은 1996년 어항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이래 국민소득 향상, 레저인구 증가 등 영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어업인과 어촌의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 6월 어식백세 수산물 '참돔·성게' 선정

〈6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참돔



성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바다의 여왕 참돔과 바다향 가득한 성게를 6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발표했다.

참돔은 고단백·저지방 식품으로 비만이나 중년기의 고콜레스테롤증 예방에 좋다. 양질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루어 소화 흡수가 잘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탁에서 부족하기 쉬운 라이신이나 트레오닌 등 필수아미노산 함유량도 높다. 또 기름기가 적어 소화가 잘되므로 환자용 식품으로 적합하며, 타우린이 다른 생선보다 많아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탁월하다.

성게알은 비타민A가 많아 야맹증 예방과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B1, B2가 풍부해 신경세포의 기능 향상에 좋다. 또한, 철분이 풍부하여 조혈 작용을 촉진하고, '바다의 호르몬'이라 하여 강장제로도 인기 만점이다. 그리고 효소성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로 술안주로도 좋다. 성게알은 체온이 낮은 사람을 정상체온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어 예로부터 산모의 산후식과 술병 치유제로 쓰였다.

참돔은 그동안 대부분 활어로 소비되어 왔으나 최근 반건조 상품이 출시되어 가정에서도 간단히 전자레인지만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성게도 성게알젓, 성게알 통조림, 성게미역국 등 다양한 레토르트 식품으로 개발되어 판매중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년 매출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참돔, 성게는 6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물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하여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이 달의 지역축제행사로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국가어항 일원에서 '제5회 태안군 모항항 해삼축제(6. 4.~12.)'가 열렸다. 축제에는 맨손물고기 잡기대회,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6월의 수산물로 선정된 참돔, 성게의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여름을 대비하여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개최, 해양 꿈나무 키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깊게 탐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1회 해양생물 탐구대회'를 개최한다.

3~4명의 학생(4학년 이상 초등학교생·중학생·고등학생 분야별 참가 가능)과 지도교사 1명이 짝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탐구 대상은 해조류, 어류 등 서식지가 해양인 생물이면 모두 가능하다. 최종 보고서는 생물학 등 자연과학적인 탐구 내용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작성할 수 있어 학생들이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① 탐구계획서에 대한 1차 서류 심사, ② 1차 심사를 통과한 30개 팀이 4개월간 탐구활동 수행, ③ 최종 보고서 평가 및 발표 심사, ④ 우수팀 및 지도교사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다. 우수 팀과 지도교사에는 해양수산부장관상(초·중·고교 대상팀 및 지도교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초·중·고교 대상팀 및 지도교사) 각각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6 및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회 종료 후에는 탐구 결과물은 11월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 김상진) 씨큐리움에 전시할 예정이다.

동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www.mabikstudy.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6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생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하면서 해양생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의 미래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해양 인재로 자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의 터줏대감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해 주세요

6월의 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인간에 대한 친화력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은 '남방큰돌고래'를 6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발표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지역에 정주하는 특성이 있으며, 연안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 해양생물로서, 이들의 건강상태와 개체수는 연안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연안에서만 관찰할 수 있으며, 개체수는 약 110여 마리로 전 세계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10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남방큰돌고래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돌고래 쇼에 동원되던 남방큰돌고래 태산이, 복순이의 불법 포획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2013년부터 보호하였으며, 지난해 7월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한 바 있다. 현재 이들은 야생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함께 야생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생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생물정보 공유앱(마린通)을 통해 '이달의 해양생물



물 알아맞히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호응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나해 7월초 불법 포획되었던 남방큰돌고래 태산이, 복순이를 제주 연안으로 방류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남방큰돌고래가 그물 등에 걸려 있거나, 좌초된 것을 발견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즉시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번으로 구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5월 정기 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 5월 27일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김호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6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점수 관리 및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언론홍보 등을 안건으로 하였다.



[통영시연합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바다정화 활동 실시]

통영시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23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해안변 일원에서 통영시 관내 공동체 30개소, 통영시청, 통영수협, 경남수산물리소, 지역담당 컨설턴트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바다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삶의 터전인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 및 주인 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실시하고 있다.

